'귀족 가문의 수호천사, 브로켈'

브로켈 까베르네 소비뇽

Broquel Cabernet Sauvignon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까시스, 라즈베리, 구운후추, 그리고 스모키한 초콜렛의 아로마가 후각을 자극한다. 약 15개월간 프랑스산과 미국산 오크통에서 숙성을 진행하여 얻어진 부드러운 질감의 탄닌과 복합적인 구조감이 특징이다.		

	DRY				SWEET
당도	1	2	3	4	5

	LIGHT				FULL
바디	1	2	3	4	5

제품설명

브로켈은 왕조나 귀족 가문을 수호하는 방패나 칼, 수호천사라는 의미를 지니며, 2004년 영국과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전세계에서 베스트 아르헨티나의 까베르네 소비뇽 트로피 수상한 시리즈의 와인이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90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2020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87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